현장시선

월동채소 수급안정의 지름길

강승표
농협제주지역본부장

2019년 전국 총생산액(1924조) 중 농림어업 비중은 1.8%로 미미하지만 제주의 도내 총생산액(20조2610억원) 중 농림어업 생산액은 1조6460억원으로 전체의 8.8%나 된다. 전국보다 5배나 높은 이 수치가 제주에서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을 방증한다. 제주도는 감귤과 월동채소를 생산해 겨울철부터 이듬해 봄까지 육지부에 공급함으로써 이 기간 국민들의 비타민 공급소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제주농업의 위상은 특별하고 위대하다.

하지만 최근 기후온난화와 생산설비 및 영농기술의 발달로 육지부에 감귤 재배면적이 계속 증가하고, 채소류도 저장출하 및 전남지역의 조기출하 등과 겹치면서 제주 농산물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농가 고령화로 재배가 쉬운 품목으로 전환하다 보니 마늘 재배면적은 해마다 줄고 월동무, 양배추, 당근 등은 해마다 늘어 농산물 수급안정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농산물 수급안정 문제는 늘 어려운 숙제이지만 농가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다. 바로 제주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요 채소류 재배면적 신고제' 참여다. 효과적인 수급대책 및 수급조절을 위해서는 신뢰도 높은 재배면적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는 농가가 빠짐없이 정확하게 재배면적을 신고할 때 가능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월동무, 양배추 등 주요 품목의 신고율은 2018년 90% 내외로 정점을 찍은 후 하락하고 있다. '나 하나쯤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겠지' 하고 여기는 농업인들이 늘고 있는 것 같아 정말 안타깝다.

타 사례를 보면 올해 마늘, 양파에서 전국 농산물 최초로 시행하는 '경작신고제'를 들 수 있다. 경작신고제는 새로운 수급조절 모델의 초석으로 300평 이상 농업경영체는 재배면적, 파종시기 등을 의무자조금단체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이다. 마늘, 양파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재배되기 때문에 수급을 조절하기 가장 어려운 품목이지만, 경작신고제 도입을 통해 수급안정을 꾀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제주도도 이름만 다를 뿐 같은 목적으로 이미 2012년부터 재배면적 신고제를 도입해 시행해 오고 있다.

재배면적 신고제는 9월 30일까지 2021~2022년산 12개 월동채소(월동무, 양배추, 당근, 마늘, 양파, 브로콜리 등)에 대해 농지 소재지 마을리사무소 및 읍·면·동사무소에 재배면적, 품목 등을 신고하면 된다. 재배면적 신고제에 참여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친서민농정시책사업 가점 부여, 원예수급안정사업 등 대상자 선정 때 우선순위 배정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초지나, 임야 등에 불법 전용해 월동채소를 경작하는 경우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된다. 올해 재배면적 신고 필지는 드론 관측사업을 통해 검증하는 사업도 실시된다고 하니, 보다 정밀한 데이터를 확보해 수급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모든 농가가 재배면적 신고를 정확히 한다면 매년 반복되는 수급불안문제를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효과적인 수급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초자료가 정확해야 한다. 9월 말까지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아울러, 농협에서도 제주도, 농식품부와 긴밀히 협조해 품목별 생육상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적기에 수급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사설

예래단지 공공사업, 새 돌파구 마련되나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은 제주 외자유치 1호사업으로 큰 관심을 끌었다. 그런 사업이 2015년 3월 대법원의 토지 수용재결 무효 판결로 그해 7월부터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이제 만 6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법정공방만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예래단지 사업부지에 공공개발사업을 추진할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JDC는 토지주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개발방식으로 공공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새로운 공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업부지내 토지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토지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토지주들과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업 추진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토지주들의 토지 재수용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 가운데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은 소송은 2건이다. 나머지는 진행중이어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는 1~2년이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소송을 통해 토지를 되찾은 토지주는 자신의 토지내 설치된 도로를 철거하라는 소송을 진행해 승소 판결을 받는 등 소송으로 얼룩진 상태다.

예래단지 조성사업이 이처럼 각종 법정싸움으로 얽히고설키면서 해법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행히 JDC가 공공사업을 추진하기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투자자인 버자야그룹과의 법적 다툼도 종결되면서 예래단지 조성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으면 한다. 현재 예래단지 사업장이 어떤 몰골인지 보면 안타깝기 그지 없다. 짓다가 중단한 건물들로 사실상 흉물로 전락했다. 언제까지 이대로 둘 것인가. 하루빨리 해결책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된다. JDC가 무한책임을 갖고 토지주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힌만큼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

탐나는전 열 달, '차질없는 발행' 최선을

지역화폐 탐나는전이 '공전의 히트'를 기록중이지만 발행을 할수록 떠안는 지방재정 부담이 걱정거리다. 구매시 10% 할인혜택에 대한 공적자금 부담이 정부보다 제주도 비율을 대폭 높여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어서다. 도 입장에선 향후 발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국비지원을 늘리기 위한 중앙절충, 발행 대행사 수수료 조정, 도비확보 등을 통한 장기 대응에 주력해야 할 상황이다.

탐나는전은 지난해 11월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를 살릴 '마중물'로 발행돼 왔다. 발행초기 적은 가맹점수에다 홍보 미흡 등으로 고전하다가 올 3월부턴 품귀현상을 빚을 만큼 인기를 끌며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발행액이 작년 두달 동안 200억원어치 였지만 올해는 연말까지 당초 예산 1500억원보다 2.8배나 증가한 425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구매액의 10% 할인 혜택, 지역경제 기여, 가맹점수 확대로 인한 사용 편리성 등이 복합 작용한 결과다.

문제는 발행규모를 늘릴수록 도비부담이 커진다는 점이다. 처음엔 10% 할인혜택에 드는 공적자금 부담 비율을 정부 80%, 제주 20%였지만 이후 정부 부담 축소로 정부 40%, 제주 60%로 역전 상황을 맞은 것이다. 도의원들이 지난 1일 추경안 심사시 '눈덩이'처럼 늘어난 도비부담 현실을 집중 거론할 정도로 문제다. 현재 도비 부담을 줄이도록 국비지원을 늘리거나 발행 대행사의 수수료율 조정 또는 대행사 수익의 지역 환원 등 방안이 거론된다.

도는 탐나는전의 차질없는 발행에 중점 대응해야 한다. 대안으로 거론된 대행사 수수료율 조정, 국비지원 확대, 지방비 선제 확보 등 모든 노력을 소홀해선 안된다. 만의 하나 지방비 부담을 이유로 발행을 중단하거나 규모를 줄이는 사태는 결코 없어야 한다.

열린마당

가로등 양방향 제어시스템 조기 구축 필요

김영철
서귀포시 건설과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에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에서 총 86개 사업이 신청됐는데 제주에서는 서귀포시 양방향제어시스템 구축사업 1건이 신청한 상태로 국비 4억원 이상 확보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평가회에서는 미리 제출한 프레젠테이션 사업 자료를 서귀포시 주무관이 설명하고 심의위원들이 사업계획과 추진효과 등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다.

서귀포시가 추진하는 가로등 양방향 제어시스템 구축사업은 무선 인터넷망을 이용해서 원격으로 가로등 등주별로 점소등 상황을 제어하거나 고장 발생 상황을 사무실에서 파악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점소등 시간대 조정에 따른 에너지 절감과 고장여부를 사무실에서 파악해서 신속한 수리를 할 수 있다.

본 사업은 2018년부터 올해까지 국비 포함 20여억원이 투입돼 동지역부터 구축해 오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읍면지역에도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주기적인 가로등 고장 야간 점검과 주민신고에 의존해오던 가로등 관리 체계를 점차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노후 등기구를 에너지 효율이 좋은 LED로 교체하고 양방향제어시스템 구축 등에 힘입어 가로등 수량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연간 전기사용료 예산은 절약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참에 서귀포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사전 평가자료 보완과 지원에 적극 나서주신 에너지공단 제주지역본부장과 관계자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민들께서도 고장난 가로등에 대해서 시청 건설과(760-3073)나 동사무소에 주저없이 전화 한 통 해주길 바란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구 권한대행 현안 해결 '동분서주'

행안부·국회 협조·지원 당부

○…구만섭 권한대행이 2일 행정안전부와 국회를 찾아 제주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

구 권한대행은 이날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을 만나 지역소멸대응기금(재정분권 2단계) 재원배분 및 제주 4·3사건 희생자 배·보상 관련 유족회 바람 등을 설명하고 향후 관심과 지원을 건의.

이어 지역구 국회의원과 면담을 갖고, 지역소멸대응기금 기초분 배분 문제를 비롯해 내년도 국비에 미반영된 사업 및 추가 확보가 필요한 제주지역 주요 현안 사업 추진 필요성에 대해 강조. 고대로기자

학교교육 정상화 언제쯤

○…최근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꺾이면서 학교 현장도 일단 안정세.

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주(8월 29~9월 1일) 발생한 학생 확진자수는 2명으로 지난주(8월 23일~28일) 20명에 비해 크게 줄었고, 등교중지 학생수도 3000명대를 육박했던 지난주에 비해 600명대로 감소.

한편 지난 8월 한 달간 발생한 학교 확진자는 191명(학생 180명·교직원 11명)으로 2일 0시 기준 누적 확진자 366명(학생 333명, 교직원 33명)의 절반 이상을 차지. 오은지기자

"공직자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김태엽 서귀포시장은 2일 1청사에서 국·소장소통회의를 갖고 "전 공직자가 솔선수범해 추석을 앞둬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찾아 위문 등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

또한 시민 접근이 용이한 문화도시 조성사업 문화프로그램 개발·운영과 올해 계획한 사업의 철저한 마무리 및 내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철저한 사전절차 이행 등을 요청.

아울러 6일부터 지급되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에 대한 각종 문의시 시민불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침을 철저히 숙지해 추진할 것을 주문. 백금탁기자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미국식품의학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흘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키폰·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통신전주건식(가입자부담공사)
▶ 네트워크 설비공사
▶ 전관방송 설비공사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 표 : 현 문 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고객을 위한 통합 SOLUTION 제공
VOICE & 영상장비 (교환대 & CCTV)
NETWORK 설비 (서버 & Network)
ONE-STOP SYSTEM
비상전원설비(UPS &AVR)
구내통신공사
◈ 열린 기술 습득 ◈ 기술인력 개발
◈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mation technology
본 점 :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

의료안내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20323-중-3524호
동구치과의원
DONGGU DENTAL CLINIC
일요일도 정상 진료합니다.
원장 신동구
중앙신협(신축) 2층 동구치과의원
제주소방서
제주대
시청
제주중앙여고
제주지방법원
제주시 이도2동 2007-8
(중앙여고 입구 맞은편 중앙신협 2층)
☎ 756-2833